

Bloomberg: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매 판매 3개월래 최고치 상승... 자동차 부문만 제외
- NYT: IMF, “미국 경제 둔화되는 모습 보인다”
- WSJ: 파월 의장,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불구 시점은 언급 거부
- Reuters: 6월 미국의 수입 물가 변동 없다

[미국 금융]

- JP 모건: 미 대선 불확실 커지면서 내년 전망 리스크 확대
- WSJ: 뱅크오브아메리카 수익 감소
- WSJ: 모건 스탠리 수익은 40% 이상 꺾춤

[개인 금융]

- WSJ: 운전자들,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적극 대응

[주택]

- CNN Business: 바이든, 임대료 인상 제한 방안 발표

[글로벌 경제]

- WSJ: IMF, 디스인플레이 둔화 속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경고해
- CNBC: 트럼프 재임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아마존 프라임데이, 소매업 성장 기대감 높여
- CNBC: AI로 인건비 절감, 고객 경험 향상하는 식품 산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Retail Sales Excluding Autos Rise by Most in Three Months

미 소매 판매 3개월래 최고치 상승... 자동차 부문만 제외

- 자동차를 제외한 미 소매 판매가 5월에 0.1% 증가로 상향 조정된 후에 6월 들어서는 0.4% 증가했다. 전체 소매 판매는 변동이 없었다.
- 이같은 6월 현상은 미국인들이 고금리에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개월간 소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과 차이가 난다.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는 시점에서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와는 다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 High Frequency Economics의 Rubeela Farooqi 미션임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소매 지출과 성장세 지표를 보면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금리 인하에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NYT: I.M.F. Sees Signs of Cooling in U.S. Economy IMF, “미국 경제 둔화되는 모습 보인다”

- ‘미국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는 전세계적으로 높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 오늘 화요일 IMF가 내린 진단이다. 이 기관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의 계속되는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으려는 공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세계 경제의 소프트 랜딩이 힘든 취약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물론 보고서는 글로벌 성장이 올해 3.2%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 보고서는 특히 미국 경제가 팬데믹 글로벌 회복에 큰 힘이 되었지만 경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력과 일자리 시작의 약세로 인해 미 경제가 예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세가 당초 예상인 2.7%에서 2.6%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NYT 기사

WSJ: Powell Signals Rate Cut Coming Into View but Declines to Say When

파월 의장,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불구 시점은 언급 거부

- 연준 파월 의장은 향후 2주 후 연준 회의에서 고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을 바꾸지 않았다. 연준 관리들은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 그는 어제 미 인플레가 연준의 기대와 맞게 광범위하게 둔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월과 6월 사이의 물가 지표들이 연준의 목표로 둔화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더 얻었다고 워싱턴 행사의 질문 응답 시간에 말했다.

WSJ 기사

Reuters: US import prices flat in June 6월 미국의 수입 물가 변동 없다

- 에너지 생산품의 가격 하락이 식품비의 반등을 상쇄한 가운데 6월의 미 수입 물가는 변동이 없었다. 수입 물가는 5월에 0.2% 감소한 후에 6월에는 변동 없는 보합세를 보였다.
-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수입 물가는 1.6% 상승했다. 5월까지의 연간 수입 물가는 1.4%였다.
- 완만한 수입 물가는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있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Reuters 기사

[미국 금융]

JP 모건: Rising risks to 2025 outlook as US election uncertainty looms larger

미 대선 불확실 커지면서 내년 전망 리스크 확대

-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및 바이든의 후보 지속 여부 등 이번 대선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시장 참가자들은 공화당 우세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 2024년에 디스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하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겠지만 대선으로 인해 고관세, 높은 인플레이,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 때문에 내년도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가 적은 상황이다.
-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안일함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채 감소 계획이나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연방 국채 시장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미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에 더욱 적대적인 입장을 띠게 될 것이다. 미국의 산업 능력에 대한 대응조치가 위엔화 평가 절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 프랑스 선거 결과는 우려보다는 상황이 덜 나쁜 결과를 보였는데 의회 공전은 주요 재정 위기보다는 정치적인 마비 위험성을 키웠다.
- 남미 지역의 경우 거시적인 그리고 거버넌스 도전에 따른 하방 위험성이 더 보이고 있어 선호하는 대상 지역은 아니다.
- 유럽이 나토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했으나 향후 전망이 보이지 않고 미국의 추가적인 지원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원자재는 이마 상당 부분 랠리 현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군, 특히 비 오일 자산 보다 더 큰 성과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JP 모건 원본

WSJ: Bank of America's Profit Slips 뱅크오브아메리카 수익 감소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분기 수익이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은행의 대출 사업에 부담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분기 은행의 수입은 69억달러로 전년도 74억달러에서 거의 7% 줄었다. 총 매출은 1% 상승한 2백 54억달러였다.
- 현재 JP모건, 시티 그룹, 웰스 파고등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

WSJ 기사

WSJ: Morgan Stanley's Profit Jumps Over 40% 모건 스탠리 수익은 40% 이상 꺾춤

- 모건스탠리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수익은 전년도 보다 41% 늘어난 30억8천만달러며 매출은 작년보다 12% 증가한 1백50억달러로 나타났다.
- 투자 banking 부문 매출은 작년보다 51% 늘어난 16억2천만달러로 웰스 매니지먼트 매출은 2% 늘어난 67억9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WSJ 기사

[개인 금융]

WSJ: Fed Up With Their Car-Insurance Bills, Drivers Shift Gears 운전자들,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적극 대응

- 운전자들은 더 이상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리서치 기관 J.D. Power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보험 고객의 절반이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보험 상품을 찾아보았으며, 이는 2021년의 41%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 운전자들은 보험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을 늘려 월 보험료를 줄이거나,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는 '마일당 보험료' 제도도 고려하고 있다.
-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같은 소비자 대응은 거의 전적으로 '가격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벅크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종합 자동차 보험의 평균 연간 비용이 12% 상승하여 2,278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1년 전 7% 상승에 이은 것이다.

WSJ 기사

[주택]

CNN Business: Biden unveils plan to cap rent hikes 바이든, 임대료 인상 제한 방안 발표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인플레이션과 급등하는 집값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 계획은,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제는 50개 이상의 임대 주택을 보유한 대형 집주인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는 미국 전역의 2천만 개 이상의 임대 주택에 해당한다.
- 또한, 신규 건설이나 대대적인 수리를 진행 중인 건물은 예외로 두었다. 이는 새로운 임대 부동산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전 정부가 기업 임대주에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준 반면, 나는 가계의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공화당은 민주당과 협력하여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들을 위해 주택 비용을 낮추는 이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글로벌 경제]

WSJ: IMF Warns Slower Disinflation Risks Higher Rates for 'Even Longer'

IMF, 디스인플레이션 둔화 속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경고해

- 국제통화기금(IMF)은 많은 주요 경제권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글로벌 성장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 워싱턴에 본부를 둔 IMF는 화요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높은 임금으로 인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IMF는 “서비스 가격 상승이 디스인플레이션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향 위험이 증가하여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WSJ 기사

CNBC: Trump 2.0 could be bad news for global inflation, analysts say 트럼프 재임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 분석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행된 고관세와 저세율 경제 정책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마인드셋(Inflation Mindset)”이 지속되어 더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State Street Global Markets)의 매크로 전략 책임자인 마이클 멧칼프(Michael Metcalfe)는 화요일 CNBC를 통해 “트럼프의 정책이 첫 번째 임기보다 두 번째 임기에서 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azon's Prime Day to Remind Wall Street of Its Retail Dominance

아마존 프라임데이, 소매업 성장 기대감 높여

- 아마존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소매업이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으로 다소 잊혔지만, 이번 주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통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데이는 화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아마존의 대표적인 쇼핑 이벤트로, 이커머스 및 소매업에서 아마존의 지배적인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선 사항들이 이번 프라임데이에서 성과를 내면서 아마존의 소매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브레너(Mike Brenner)는 프라임데이가 아마존의 성장과 이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제퍼리스(Jefferies)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의 소매 사업 효율성이 개선되면 Ebit 마진이 2022년 2.4%에서 올해 9.9%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프라임데이 매출이 주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은 약해졌지만, 2024년에 주가 29% 상승을 통해 아마존의 시장 가치를 2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loomberg 기사

CNBC: How AI and automation will reshape grocery stores and fast-food chains

AI로 인건비 절감, 고객 경험 향상하는 식품 산업

- AI는 기술 부문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서도 주목받는 트렌드이다. 미국에서는 식료품점이나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와 드라이브스루 차선의 AI 주문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 계속되는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할인 상품을 찾는 등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식품 산업은 높은 인건비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일부 품목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AI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올해 레스토랑과 드라이브스루에 AI와 로봇을 도입하는 데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 식품산업협회 FMI는 2025년까지 스마트 카트 및 개선된 무인 계산대 통로와 같은 혁신에 대한 식료품점의 지출이 400%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um Brands의 최고 디지털 및 기술 책임자인 Joe Park는 AI와 기술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C 기사

美시장, 금리인하 연내 3회 전망...골드만 "환경 성숙돼"

9월 첫 인하 예상 우세 속 "7월 인하 근거 있어" 주장도

미국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에 금리인하를 3차례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금리인하 환경이 무르익었다는 분석을 제기한 후 그런 전망을 근거로 한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0.25%씩 두차례 금리 인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3번째 금리인하 가능성도 60%나 됐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